광주 월드컵경기장 하루 6시간씩 개방

내달부터…무등경기장도 개방 연장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오는 3월부터 하루 6시간씩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일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첫 업무 보고회를 열고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육상 트랙을 오전(5시~8시), 오후(6시~9시까지) 각각 3시간씩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시간에는 시민들이 지루하지않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하계U대회 유치 등 시정 홍보물도 방영할 계획이다. 단 잔디구장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또 가맹경기단체와 협조해 엘리트체육 지도자들이 올바른 운동방법, 부상 예방법, 부상 후 재활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무등경기장은 개방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경기장 내 운동기구 무료대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염주체육관의 경우 어르신·주부들도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장구교실·스포츠 댄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체육회는 앞으로 시민건강걷기대회·어머니 배구대회·유아축구대회 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동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체육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 및 사용허가방법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이 손쉽게 체육시설물 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소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운영권을 도시공사에서 넘겨받은 시체육회는 염주체육관 등을 포함해 체육시설물 통합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효율성 극대화와 내실있는 대시민 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학절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시설물을 특정 계층이나 선수들 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 중학축구 최강자 가린다

우승팀에 '맨유 프리미어컵' 출전권 부여

16~27일 강진·해남서 전국 143개팀 열전

축구 꿈나무들이 남도를 찾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컵' 출전권을 향한 열전을 펼친다.

전국 중학교 축구팀 최강자를 가르는 제45회 춘계 한국중등(U-15) 축구 연맹전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강진종합운동장과 해남 우슬경기장 등에서 개최된다.

우승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엄컵 한국 대표 자격을 얻는다.

전국 143개팀 5천6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대회는 5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선리그와 결선리그를 거쳐 선발된 각 조 우승팀이 26일부터 왕중왕전을 치른다.

한국중등(U-15)축구연맹과 (주)나이키코리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유소년 월드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엄컵 대회도 겸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엄컵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유소년 축구대회로 매년 여름 국내 본선을 통과한 50여개국 대표팀이 세계 결선을 치러 우승팀을 가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기중 32개팀이 참가하는 국내 예선이 치러졌지만 올해부터 연중 리그제가 도입되면서 일정을 옮겨 춘계 중등축구 연맹전으로 대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출전, 지난 2002년 광양제철중이 4강에 오른 적이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돌아온 월드스타 윤경신

8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09 SK핸드볼큰잔치에서 두산 윤경신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핸드볼큰잔치 개막

두산이 2009 SK 핸드볼큰잔치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두산은 8일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막한 대회 첫날 남자부 예선 A조 1차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경기에서 19-18로 이겼다.

경기 시작 12분이 넘어서야 첫 골을 넣는 등 초반 난조에 시달린 두산은 1-6까지 끌려가다 정의경, 임도요타 겐지, 윤경신의 연속골로 5-6을 만들며 추격에 불을 붙였다.

전반을 8-8로 마친 두산은 종료 12분여를 남기고 정의경의 연속골로 15-14, 첫 역전에 성공했다. 기세가 오른 두산은 도요타의 속공으로 한 골을 더 보태 2점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굳히는 듯했으나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박찬응과 조현철의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후 17-17까지 맞섰으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두산의 뒷심이 더 셌다.

신지애, 9언더 공동 8위

유럽투어 ANZ레이디스

"이번 대회 가장 아쉬운 점이요? 좋지 못한 제 컨디션이었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식 멤버로서 데뷔를 앞둔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가 아쉬움속에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NZ레이디스마스터스를 마쳤다. 신지애는 8일 호주 골드코스트 로열파인스 골프장(파72·5천892m)에서 열린 유럽여자골프투어 ANZ레이디스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지만 홈코스에서 펄펄 날아다닌 캐서린 헐(호주)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친 신지애는 린제이 라이트(호주)와 함께 공동 8위에 올랐다. 신지애는 9일 한국으로 출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LPGA 투어 개막전인 SBS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떠난다.

/연합뉴스

WBC 투수 이치로 ?

147㎞ 광속구…등판 가능성

내달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투수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한 일본대표팀 간판 외야수 스즈키 이치로(36·시애틀 매리너스)가 시속 147㎞ 짜리 강속구를 던져 또 한번 화제가 됐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8일 인터넷판에서 훈련 중인 이치로가 불펜에 올라 56개나 던졌다면서 사진과 함께 전력 투구 소식을 전했다.

이치로는 주자가 있는 상황을 대비해 와인드업 없이 세트포지션에서 던지는 동작, 주자 견제를 위한 퀵 모션 동작도 선보이는 등 여느 투수 못지않게 열의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닛칸스포츠'는 포수들의 말을 인용, 최고 시속 147㎞가 찍혔고 세트포지션에서는 145㎞를 기록했다면서 종속이 좋았던 전 주니치 드래곤스 마무리 투수 선동열 삼성 감독과 같은 느낌이라고 묘사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광주서 프로야구 올스타전, 팬들 미묘한 반응

구장 비좁고 편의시설·관람석 등 노후화 심각

2009년 프로야구 올스타전 광주 개최를 놓고 광주 야구팬들이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는 단장회의 결과 2009년 올스타전을 7월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이후 11년 만에 광주에 프로야구 '별들의 별'이 총출동하게 됐다.

하지만 1만 3천400석 규모에 불과한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올스타전 구장으로 선정됐다는 것에 많은 야구팬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최근 5년간 올스타전은 흥행을 고려해 3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사직·문학·잠실경기장에서 개최됐었다.

광주 개최에는 KIA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있었다. 김조호 KIA 단장은 이날 지방구단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광주 개최를 건의했고, 다른 구단들의 동의로 올스타전 개최가 성사됐다.

KIA 팬들은 일단 올스타전 개최를 반기고 있다. 11년 만에 안방에서 프로야구 큰 잔치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야구팬으로 감격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다.

올스타전은 8개 구단의 스타 선수와 전국의 야구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지만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1만3천여 관중 밖에 입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기장이 1965년 건립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물론 경기장 관람석도 비좁아 모처럼 광주를 찾는 '귀한 손님'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팬들의 걱정이다. 게다가 여름철 인조잔디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참가 선수들은 더위와 부상이라는 이중고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야구 게시판에는 팬들의 불편한 심기가 담긴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야구장 신축에 대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광주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한 네티즌은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얼마나 창피하고 슬픈 일입니까?"라는 글로 팬들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는 "KIA 팬이지만 문학·잠실·사직구장 번갈아 가면서 하자. 축제의 장이면 많은 관중이 들어설 수 있는 경기장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KIA의 과거 역사는 화려해도 광주 구장은 그대로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열악한 시설을 TV카메라로 샅샅이 잡아내서 야구장 신축에 대한 야구팬들의 공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체육회 이사회의에서 "당초 광산구 옥동차량기지 인근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야구장 부지선정작업을 전면 백지화했다"며 야구장 신축사업을 국비에서 민자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